

초일류 건설현장 탐방

최초의 주택공사

무재해 3배 달성을 위해



거 리에는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고, 북녘의 찬 공기가 몸을 더욱 움추리게 하는 겨울 문턱에서 무재해 현장을 일구는 곳이 있어 찾아갔다.

경기도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안산고잔 터키 7공구 현장인 두산건설(문상철 소장)이 바로 이곳이다.

이 현장은 얼마전 무재해 2배 달성의 기록을 세웠다.

그 외 노동부로부터 초일류기업으로 지정 받았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친화사업장으로 지정 받기도 하였다. 이는 안전보건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문상철 소장의 뛰어난 리더십과 몸을 아끼지

않는 안전관리자, 직원, 근로자가 하나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문상철 소장은 “주택공사에서 한번도 이룩하지 못한 무재해 3배 달성을 우리가 최초로 달성 할 수 있다”며 굳은 자신감을 보였다.

최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층화되고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무재해를 가로 막는 것이 재래형 재해인 추락재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무재해 사업장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안전제일이라는 깃발 아래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에 적극

초일류 건설현장 탐방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을 많이 하더라도 안전은 꼭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원을 아끼려다 사고로 인해 경제손실은 100원이 될 수 있다”고 문상철 소장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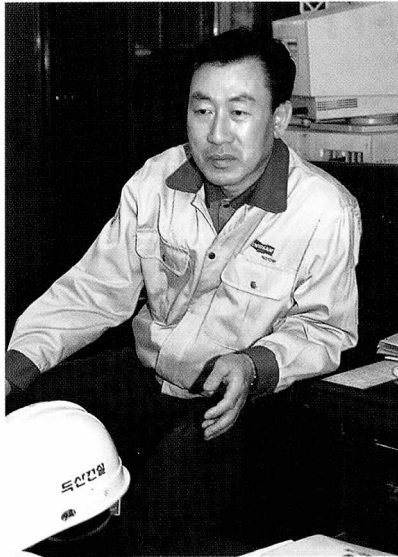
문상철 소장은 현장의 정리·정돈을 중요시한다. 현장이 깨끗하면 현장의 위험요소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조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두산건설 안산고잔 툃키 7공구 현장은 안전시설에 다른 현장에서 보기 힘든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정호, 기성호 안전관리자가 그 주인공으로 항상 작업자의 입장에서 안전시설 및 보호구를 개선하여 안전성을 극대화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1) 안전난간연결대 : 발코니 안전난간의 길이 부족으로 근로자 추락 및 자재의 낙하로 재해로 이어질 우려 있어 안전난간 단부에 B/T의 연결대를 사용하여 단부와 구조물과의 틈새를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재해를 예방했다.

2) 안전시설물 관리 실명제 실시 : 표준안전난간, 이동식 비계, 경사로, 가설계단 등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해 설치,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는 안전시설물 관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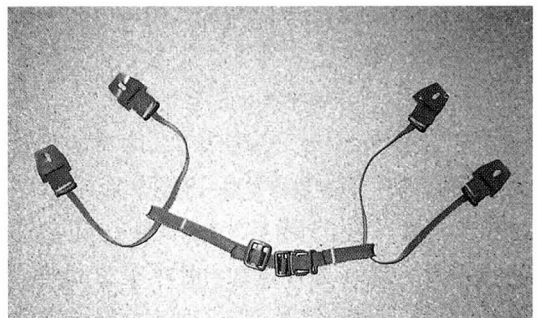


3) 안전대 성능 확인대 운영 : 현장 입구에 안전대 성능 확인대를 설치하여 고소작업 근로자가 안전대 사용전후크, 로우프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한후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호이스트에 대한 안전 확보 : 호이스트 상부는 안전의 사각지대 이므로 형틀 근로자가 자재를 상부층으로 올리기 위해 발코니턱까지 받을 내밀어 작업을 하는 등 추락

의 위험이 있어 별도의 브라켓과 발판, 낙하물 방지틀이 한 셋트로 구성된 안전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호이스트 하강시 근로자와 충돌에 의한 중대재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호이스트 하강시 근로자 감지센서(착안 : 아파트 현관 센서 등)에 의한 경보장치를 부착, 사용케함으로써 무의식중에 근로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5) 엘리베이터 Pit 구간에 대한 추락 재해 예방 : 엘리베이터 Pit 구간에서는 추락 재해 발생 위험에 대해 2.6m 마다 철근을 매립 시공하고, 덧





개를 설치하
므로써 작업
자가 추락을
하더라도 중
대재해로 이
어지지 않도
록 하고 있다.

이 와 같 은
안전시설 시
공은 시공이
빠르고, 경비

도 저렴하며, 안전성을 극대화 할 수 있어 다른
현장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율안전을 위한 안전활동

1) 이진 아웃제도 :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불
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작업 등
이 1회 적발되면 벌금을 부여함과 동시에 양중
장비 지원을 중단시키고, 동일인이 2회 적발되
면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로 현재 8명이 퇴
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사람이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해당자가
일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해 타워
크레인, 호이스트 등 중장비 지원
을 중단시켜 “한 사람이 잘못하
면 주의 사람도 피해를 본다” 라
는 연대 책임제 도입으로 안전활
동을 유도하고 있다.

2) 안전명찰 부착 : 직원, 협력
업체 근로자까지 안전명찰을 부
착케 하므로써 작업시 이름을 불
러 인격존중과 상호 친밀감 조

성, 소속감을 고취시켜 자율적인 안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3) 3부터 운동(나, 지금, 여기부터 안전운동)
: 2000년 두산건설 안산고잔 아파트 현장의 슬
로건으로 모든 안전을 나자신부터 솔선수범하자
는 운동이다. 작은 것 하나부터 관리감독자 어느
누구든 근로자의 불안행동 및 불안전상태 발견
시 그 자리에서 지적, 시정케하는 실천운동이다.

4)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 시행 : 협력업체에
대해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안전 활동의 문제점
을 제시, 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
해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협력업체
에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 다음 공사 수주를 어렵
게 하고, 무재해 300만시간을 달성한 협력업체
에 대해서는 우수협력업체로 지정하여 다음 공
사에 대해 수의계약의 자격을 부여한다.

근로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현장에서 안전모는 쓰는데 턱끈을 매지 않아
재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어 턱끈은 안전모의 생
명이라 할 수 있다.



초일류 건설현장 탐방

기성호 안전관리자는 어느 날 턱끈을 매지 않고 작업을 한던 작업자에게 왜 턱끈을 매질 않는냐는 질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들었다. 퇴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앉아 있던 한 아주머니가 『아저씨는 안전모를 참 잘 쓰시는 모양이에요?』라고 하는 바람에 창피했다고 한다. 뜨거운 여름 햇빛에 얼굴이 그을려 안전모 턱끈 자욱이 얼굴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기성호 대리는 더 이상 턱끈 착용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고안하여 착용하고 있는 것이 당 현장의 안전모이다. 기존의 안전모 턱끈의 폭이 18~20mm 였으나, 5mm와 10mm로 각각 줄이고 두께를 보완한 턱끈을 보호구 업체와 협의하여 제작하여 보급한 결과 얼굴에 턱끈 자욱이 나타나지 않았고, 안전모 착용율이 더욱 높아져, 타 사업장 및 타 현장에까지 적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경제악화, 안전관리 정책 완화 등으로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희석될 우려에 직면하고 있고, 몇 개의 건설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안전관리 부서 축소 또는 타부서와의 통합 등 안전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조정호 안전관리 과장은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안전인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 놓았다.

IMF이후 다시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안전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사기 또한 저하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조정호 과장은 “어려운 시대적 환경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직도 주변에는 할 일이 많다고 본다. 안전인들은 자포자기 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다기능맨이 되던지 아니면 안전분야에서 베스트 원이 되도록 남과 다르게 자기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현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주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분야에서 일인자가 되기 위해 무재해 현장을 만들고 있는 두산건설 안산고잔 툃키아파트 7공구 현장은 주택공사로 최초로 무재해 3배 달성을 무난히 달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곳에는 문상철 소장을 필두로 한 안전의 과수꾼들이 있기 때문이다. 